

“남해안, 제주 뛰어넘는 섬·해양·수산 특화 관광지로 육성”

전남·경남·부산, 지난 27일 영암서 ‘남해안 미래 비전 포럼’ 개최
김영록 지사, 남해안권 발전 비전 제시...“남해안특별법 등 시급”

김영록 전남지사가 세계적인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남해안에 대한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제정과 ‘남해안 종합개발계획’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개발 목표와 방향, 개발 방식과 지원 방안 등을 법·제도도로 규정하고, 전남·경남·부산 등 3개의 상이한 지자체가 각기 따로 관리하는 남해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구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전남의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연도가는 오는 2030년 전후로 상당수 마무리되고, 특히 여수·남해를 잇는 해저터널이 2031년 완공되면 부산에서 남해안, 서해안을 거쳐 경기도 파주까지 있는 1239.4km의 우리나라 최장 국도 77호선의 모습에 완전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해안에 대한 접근성이 계속 향상되면서 최근 숙박·편의시설, 관광시설 등이 하나 둘 들어서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경남·부산의 일치된 의견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목포 울도·달리도~해남 화원 구간(연장 13.49km 2차로)과 고흥-여수 간 백리섬섬길의 마지막 구간인 국도 77호선 여수 화대-백야 구간(12.96km 2차로)이 각각 2027년, 여수 삼양과 남해 서면을 잇는 국도 77호선 여수~남해 해저터널(8.08km 4차로)은 2031년 완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국도 2호선 신안 비금-암태 구간(10.4km 2차로)이 2032년 완공되는 등 앞으로 8년 후면 신안에서 시작해 해남-완도-장흥-보성-고흥-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에 이르는 남해안 해안선을 자동차로 달릴 수 있게 된다.

전남도가 경남도, 부산시 등과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96개 사업에 20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휴양지이자 관광지인 제주도를 넘어서는 잠재력과 자원을 가진 남해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숙박·편의시설, 관광시설 등이 요소요소에 배치된다면 우리나라 관광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을 비롯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산업 및 관광 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동서 간 상생협력벨트 조성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영암 현대호텔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2회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도 남해안에 대한 전략적 개발을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남해안 종합개발

계획’ 건립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은 전남, 부산, 경남 3개 시·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박지원·이계호·서삼석·김원이·문금주 국회의원,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김희수 진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기업 및 기관·사회단체, 학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남해안권 발전 비전을 말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남, 경남, 부산 시·도지사가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비전과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 토크쇼에 이어 전문가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시·도지사 정책토크쇼에서 “남해안은 환태평양 관문으로 섬·해양·갯벌 등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과 특색있는 생태·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중해에 버금가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현재 문체부, 해수부, 국토부 등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지방통합형 행정기관인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체제와 전례 없는 인구집적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담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전남도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통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거듭나고 전국적 적용 선도사례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경남도와 함께 지난 27일까지 이틀간 경남 하동, 전남 순천에서 전남-경남 지방시 대위원회 간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조기 제정 등을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전남도, 부산시, 경남도는 2022년 12월 김영록 전남지사 제안으로 광양에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2023년 2월에는 경남 통영에서 당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남해안권(전남·부산·경남) 정책협의회’를 열고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하는 등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배춧값이 심상치 않아...해남에 온 농림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남 해남군 일원의 배추밭을 찾아 김장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입장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원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도 의사 단체가 이 기구에 들어와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2천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국가 기념일 지정

행안부, ‘기념일 규정’ 개정안...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은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에 세종대왕 및 한글과 관련한 전시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해왔다.

이 때문에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국가 차원의 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국민은 한글의 소중함 등을 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

고 관련 분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했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부처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이라면서도 “올해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된 후, 내년부터 국가기념일에 포함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민국 대표관광지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한국, 일본, 대만.. 마침내 홍콩까지!
아시아 신항로를 열다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13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광주지사 1688-1104

한국 / 일본 / 홍콩 / 대만
아시아 4개국 크루즈 11일

2025년 1월 6일 인천항 출항

조기에약 40만원 할인 + 선착순 선실 우선 배정
예약 후 24시간 이내 1인 예약금 100만원 입금 및 9월 30일까지 완납 조건

내 측 2,890,000원~ 오션뷰 3,290,000원~
발코니 3,690,000원~ 스위트 4,490,000원~

인천항 - 오키나와 - 이시카기 - 홍콩(1박 2일) - 기륭 - 부산항

1 홍콩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기는 홍콩 OverNight
2 겨울에 만나는 따뜻한 겨울(평균온도 22°C)
3 크루즈 특별 공연 ·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셀럽 특별 콘서트
롯데관광 크루즈 스태프, 가수왕 선발대회
4 13년 노하우! 한국맞춤형 특별진세선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롯데관광 특별 초청 게스트!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코스타 세레나에서 펼쳐집니다.

코스타 세레나호 ·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 수용인원: 3,780명 · 승무원: 1,100명

GRAND HYATT 제주
예약·문의: 1533-1234

기적포함내역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된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기사경비**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체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안전경비내역] ●여행유류 ●여행자세 ●일수요금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니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음
●종로구청 ·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인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출발지 · 인천/김해/대구/부산/청주공항 ●여행보험처리센터: 1588-8692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 버스, 해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표,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